

LGD, OLED · UHD 기술 임직원 포상

LG디스플레이(대표 한상범)는 12월14일 경기도 파주공장에서 <2012 혁신성과 발표회>를 열어 2012년 기술·제품·생산부문 혁신에 기여한 임직원들을 포상했다고 12월16일 발표했다.

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(Organic Light Emitting Diode)와 대형 울트라HD(UHD) 등 시장 선도제품 개발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4개 혁신활동팀(TDR)에 대상인 월드넘버원(World's No.1)상을 수여했으며, 기술·제품·생산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35개 TDR에게도 특별 포상금과 해외여행 등의 부상이 주어졌다.

TDR(Tear Down & Redesign)은 기존 프로세스를 허물고 새로운 설계로 성과를 창출하는 LG그룹의 전사적인 혁신활동으로, 2013년도 TDR 출정식을 겸한 행사에는 한상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,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.

한상범 대표는 “어렵고 힘든 경쟁 상황 속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일구며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들의 혁신적 노력 덕분”이라고 격려했다.

<화학저널 2012/12/17>